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7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김주의 법구

한 티끌 속에도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고, 한 생각의 찰나 속에도 영원이 포함되어 있다 〈의상대사 법성게〉

법회 안내

묘각사 (02)763-3345
일요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영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불교문화초급학교 매주 수 · 목 오후 2시~4시까지
청수사 (02)816-1290
지상일등참불사 매주 일 오전10시
수요정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화생화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한문교실 매주 월~금 오후4시
대구 한마음선원(053)426-2779
수련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 ·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중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제주 죽림정사 (064)56-1345
수련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주부경전읽기법회 화 오후2시
원각사(0394)33-0001
일반신도법회 매주 금 오후8시
신중기도 매월 1일~3일(양)
인동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명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평사(0361)54-1092
일반신도법회 매월 1 · 15일(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금주 20면 발행

"사이비 승 뿌리 뽑겠다"

'소쩍새 충격' 확산…조계종·종단협·경찰청 연계 대처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졌던 소쩍새 마을의 일력이 사실은 추악한 과령치범이었음이 드러난 지난 4일 MBC—TV PD수첩 '소쩍새 마을의 진실'이 큰 충격을 주면서 이를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 사이비 승 퇴치에 주력하자는 소리가 높다.

교계의 대표적인 부랑인 · 장애인 보호시설로서 후원회원만 7만여명이 넘는다는 '소쩍새 마을,' 스님이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시를 아낌없이 한 7만여 후원회원을 비롯 불자들은 마치 농락당한 듯한 분노, 배신감, 허탈감에 빠져 있다. 또한 신행중 으뜸인 '보시행'이 이렇게 참담하게 우롱당한데 대한 분노로써 신행신활의 회의마저 느끼고 있는 불자들이 많다.

'일력' 사건을 기화로 승려도 아니면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다니며 복지사업에 뛰어들거나 약 · 부적 · 책등을 강매하는 행위, 불사하는 사찰에서 방원비 · 재비를 뜯어가는 사이비 승려 근절 대책에 조계종이 적극 나섰다. 호법부는 탁발승 유랑걸승 등 사이비승려를 수십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에는 군소종단 승적을 갖고 있거나 멀빈자 등 무승적자가 대부분. 호법부는 지난 6일 사이비승려에 관한 신도및 대 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이비 승려들의 불법행각 발견시 호법부(02-735-1769)나 각 교구 본사 호법국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조계종은 호법부의 조사나 단속에 사법권이 없음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감안, 경찰청과 내무부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타종단과 연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종단합 차원의 대책을 강구 하고있다.

안으로는 싹아들어가면서 겉으로는 보살의 화신인 듯 보인 인면수심 '일력'의 사건은 출가의 본 의미를 망각하고 파계를 다반사로 여기는 일부 승려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한국불교가 아직도 여러 면에서 개혁돼야 함을 경고해 준다.

막행막식을 무애행으로 호도하며 파계에 스스럼이 없는 일부 승려들의 의식이나 스님들의 파계를 은연중 조장 방조하는 일부 신도들의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충분한 수행을 쌓기도 전에 온만 있으면 쉽게 승려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성있는 종단이 버젓이 불교종파로 행세하고 있는 것도 불교를 좀먹어 가는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다수 불자들은 일력의 파렴치행을 반조의 거울로 삼아 사부대중 모두 승풍확립과 파사현정을 지향하는 올곧은 의식개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법타스님(오른쪽)을 비롯 총무원 간부 및 직할사암 주지,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은 안국동 현합의 집에서 현합을 허며 삼풍 부상자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삼풍 아픔나누기 불자들 나서

사후대책 강구 '부실추방 말로는 안돼'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한번 보여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6일 1시까지 사망 1백27명, 부상 8백56명, 실종 2백95명등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사고현장 곳곳에서 아직도 실종자 사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등 5개 건설관계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여야는 지난 5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의 원인 규명과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고처리와 사후대책 강구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사고직후부터 현장지휘체계, 전문구조인력 및 구조장비의 부족, 구조대원들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을 들춰시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과 사찰, 단체등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성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불자자원봉사자들이 음식제공 등의 활발한 활동을 구조현장에서 펼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온갖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와 행정관행의 개선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온자 기자〉

각계 분노의 소리 2면 / 참사현장에 핀 자비 3면

◇7월2일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제에 의해 희생된 동포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법요를 공동으로 봉행했다.

'남·북 불교 동경회의' 무산

정부 접촉 불허…희생 동포 위령법회 봉행

남북불교대표들과 재일본불교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조국의 평화통일과 불교도들의 역할에 관한 제1차 동경회의'가 정부의 북한주민 접촉불허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16면)

한국의 종단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한불련)와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조불협)는 이날 동경 가든팔레스호텔에서 4자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공동행동과 공동모임의 적극추진 등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제1차 동경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한불련과 조불협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미 준비된 공동선언문에 추후 종단협회장 월주스님과 북측의 박태호 조불련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남북대표들이 합의한 날짜에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키로 했다.

4자회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측 대표 서봉(종단협 부회장, 단장) 지광(진각종 전 통리원장) 법타(조계종 총무부장) 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설송(조계종 사업부장) 이건호(한국불교방생회장) △북한측 대표 황병대(조불련부회장) 외 4인 △재일한불련 대표 석태연(한불련회장) 와 4인 △조불협 대표 홍보월(조불협 회장대리) 외 4인.

이에앞서 지난 2일에는 조국통일을 기원하고 일제당시 숨진 희생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동 위령법요가 일본정토종 총본산 동경 증상사에서 봉행됐다. 〈일본=정성운기자〉

목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지 않았나.

'소쩍새 마을'의 아빠스님 일력에 대한 소문이 바람에 떠다니더니 마침내 지난 4일 밤 MBC—TV PD수첩에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잠을 못잤습니다."

"아무리 사이비승이라고 해도 불교 망신인것 같아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계에서는 부처님을 모독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그토록 방치할 수 있었습니까."

"불교언론도 일반언론에 앞서 대처못한 책임감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소쩍새 마을뿐 아니라 몇군데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사이비승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자비의 화신인양 부처님을 빙자한 두얼굴의 사이비승 일력은 1백30여 '소쩍새 식구'들과 그 후원자 7만여명의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장시라도 불교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신행의 첫 덕목인 보시행을 우롱한 셈입니다."

자비로 위장한 일력의 인면수심(人面獸心) 정체가 폭로되자 교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일력은 갈곳없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삼았으나 그들은 불모였다. 닥치는 대로 성폭력을 일삼고 가스총을 난사하며 정신질환자를 내다버린 그의 인권유린은 곧 양심불능과 그뿐인가. 그는 거룩한 성금으로 주색을 즐겼다.

무너진 삼풍백화점을 보면서 아픔도 크고 반성도 깊었듯 교계는 사이비승 일력을 통해 단속하고 되돌아 보아야 할 일들이 많을 줄 믿는다.

그리고 소리없이 울고있을 소쩍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겠다.

소리없이 우는 소쩍새 가족

6월27일은 지자제선거일,
다같이 투표에 참여 합시다.

신명나는 지방자치, 힘차게 다시 뛰시다!
韓國
韓國人 —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다시합쳐 힘을 모읍시다.
지방자치는 세계화의 출발 -
깨끗한 선거, 바른선택으로
21세기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세계로 가는 한국,
미래로 가는 한국인-
우리의 힘과 저력뒤엔
언제나 인삼이 든 원비·엘가
함께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일양약품
일양약품
원비-에프
WONBI-F
WONBI-F
医藥品
용법·용량 : 1일1회1병
효능·효과 : 육체피로·
자양강장·허약체질
표준소매가격
550원
洋·韓方의 과학화를 선도하는…